기재부 제2차관에 전주 현안사업 지원 건의

최상대 제2차관 · 예산실 주요 간부 공무원, 전주 방문… 우범기 시장, 예산반영 필요성 · 사업 당위성 피력

전주시는 22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문화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 등 기획재정부 예산실 주요 간부공무원들이 전주를 방문해 주요 사업대상지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전주시가 내년도 국가 예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전주 발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22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문화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 등 기획재정부 예산실 주요 간부공무원들이 전주를 방문해 주요 사업대상지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국회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전주시 핵심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국회 단계의 예산 반영을 건의한 주요사업은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구축 사업 등이다.

최상대 제2차관 등은 이어 △전주천 년한지관 △전주종합경기장 △전주치명자성지 평화의 전당 등 주요 국비지원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난 9월 2일 기획재정부를 떠나 국회에 제출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는 비록 정부 차원의 추가 예산반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 단계 주요사업의 반영을 위해서는 기재부의 동의 절차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기재부와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예산 반영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시는 앞으로의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는 기재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정부안 미반영 사업을 재정비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서고, 천년 미래를 여는 큰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전주 발전을 이끌 대규모 국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예산편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재부는 물론 지역 정치권, 전북도와 끈끈하게 공조하는 등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성평등 생활연구 지원사업 결과 공유

성평등전주, 28~30일 결과공유회 개최

전주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성평등전주 커뮤니티홀에서 총 5회에 걸쳐 '2022년 성평등 생활연구 지원사업 결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성평등 생활연구 지원사업은 일상 속 다양한 성평등 문제를 성평등 관점에서 연구하고 그 해결방법과 대안을 마련하는 시민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결과공유회에서는 시민연구자들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주거공동체 △20대 여자 현상 △청년고용지원정책과 성평등 △코로나19와 돌봄 △학교 안 성평등 교육 등 5가지 주제로 추진한 성평등 생활연구 활동결과에 대한 주제별 발표가 예정돼있다.

발표 내용은 △주거공동체 사례연구를 통한 전주형 사회주택의 방향성 모색 △20대 여자 현상을 통해 바라본 전북지역 20대 여성의 투표 참여와 정치적 효능감 연구 △성인지 관점에서 본 전라북도 청년고용지원정책 현황 및 분석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여성의 돌봄노동 실태조사 △전라북도 포괄적 성교육 강사 교사들의 고충분석과 이를 반영한 성평등수업 개발에 대한 질적 실행연구 등이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시민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구글 폼(forms.gle/u8ELdhqj6M6N3FhY7)을 통해 주제별로 사전 참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063-273-5050)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경력단절여성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28일 '현장 채용 면접의 날' 진행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중단된 전주지역 여성들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열린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박성숙)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센터 4층 민들레홀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 성공과 제2의 삶으로의 도약을 응원하기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취업선물'을 주제로 한 현장채용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센터의 취업 사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생과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생,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등 총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사무관리, 영업 · 판매 유통, 교육 · 연구, 이 · 미용, 음식 · 숙박, 보건 · 의료, 사회 · 복지, 제조 · 생산, 기타 직종 등 10개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해 현장면접을 통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게 된다.

또한 모든 면접 참여자에게는 기프트콘 선물이 주어지고, 취업에 성공한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선물이 주어지는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박성숙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여성들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채용 면접의 날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한 사람의 상담 · 한 사람의 훈련 · 한 사람의 취업을 소중히 생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문화재와 전주 아름다운 밤의 문화 함께 즐겨요"

전주문화재야행, 23~24일 경기전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서 개최
'치유의 경기전을 거닐다' 슬로건으로 8개 섹션 29개 프로그램 진행

가을 선선한 밤공기와 함께 문화재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2022 전주문화재야행(이하 전주야행)이 펼쳐진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경기전 등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문화재와 전주의 아름다운 밤의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전주야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치유의 경기전을 거닐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전주야행은 시민과 관광객이 전주만의 역사 · 문화 콘텐츠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화 활동을 통해 치유될 수 있도록 총 8개 섹션의 29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전주야행의 대표 프로그램은 '문화재 치유의 공간'과 '경기전의 밤', '경기전 좀비실록' 등이다.

먼저 '문화재 치유의 공간'은 시민과 관광객을 치유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치유의 명상 △차(茶)회 △국악 △움직임 △휴식으로 5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또한 '경기전의 밤'의 경우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체가 출연하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국악 실내악단체와 판소리 합창단 등이 출연해 경기전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 관계자는 "기존의 전면 온라인과 사전예약제 같은 제한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형태의 축제를 진행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전주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축제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문화재야행은 지난 2018년 문화재청이 선정한 최우수야행에 등극하고 한국관광공사가 '꼭 가봐야 할 야간관광 100선'에 포함됐으며, 2019년에는 역대 최대 관광객인 28만여 명을 기록한 바 있다. 주요 프로그램과 세부 일정은 전주야행 누리집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토종식물 성장 막는 '가시박' 제거 추진

전주시가 전주천과 농수로 등에 대량으로 번식해 토종식물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시박'을 제거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총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입해 △덕진공원 주변 △금성장례식장 주변 △하수처리장 주변 △전미동 일원 △월드컵경기장 주변 △자연생태관 주변 등 총 6개 구역 약 3만7000㎡의 가시박 서식지를 대상으로 가시박 제거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 교란식물 15종 중 하나인 가시박은 일년생 덩굴식물로 번식력이 매우 강해 다른 식물을 감고 올라가 생육을 저해하고 고사에 이르게 하는 등 토종식물의 서식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식물이다.

시는 가시박의 경우 주로 물길을 따라 이동하며 번식하는 만큼 전주천 상류와 하천으로 유입되는 농수로를 중심으로 제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가시박 종자가 퍼지지 않도록 열매를 맺기 전인 10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